

앱 세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 효과*

김은경** · 김경희***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앱세대로 일컬어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주관적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방정환재단의 2017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를 활용하여, 행복은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그리고 개인행복 등에 관한 변수로 측정하였고,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친구규모와 접촉방식에 따른 친구유형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 친구, 학교와 관련된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분석의 첫 단계는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청소년의 행복지수 간의 관계에 관한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을 친구와의 접촉방식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형, 온라인 중심형, 온·오프라인 결합형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로 연결망 규모와 행복 간 관계를 재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역U자형 관계를 보였다. 친구규모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행복지수 역시 상승하지만, 특정 규모 이상을 넘을 경우 행복지수는 다시 낮아져 비선형적 특징을 보인다. 둘째, 온라인 중심적 친구유형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가 청소년의 행복지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오늘날 온라인의 역할이 청소년의 새로운 사회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기보다 이미 축적된 사회자본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모든 사회적 연결망이 청소년의 행복에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연결망 유형이 동일한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청소년,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관계, 사회자본, 행복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witheunk@gmail.com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교신저자, khkim64@cau.ac.kr

I. 서 론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생활화와 이를 주도하는 앱 세대(App Generation)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세상은 디지털 기술을 빼놓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세대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고 SNS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가상과 현실을 유연히 오가며 정보를 공유하는데 거침없는 세대를 ‘앱 세대(Gardner & Davis, 2014)’라고 정의한다. 앱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비중이 높아진 이 세대의 인간관계는 거의 24시간 타인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가드너와 데이비스(Gardner & Davis, 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세대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크게 감소되고 있으며, 항상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고립감은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에 있어 시·공간적 연결성은 연장된 반면 정서적 소통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이를 밝혀내고자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어려서부터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바람직한 공동체 삶을 꾸려나가도록 끊임없는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집단과 사회 차원에서 삶을 영위하고 적응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간다. 이러한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ies)은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김태준, 윤혜경, 2008; 양소은, 김은미, 2014: 6)이며,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는 온라인 이용의 효과에 주목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즉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만남이나 접촉이 신뢰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어 참여적인 시민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식이다(Cross, Parker & Sasson, 2003; Shah, Kwak & Holbert, 2001; Zhang & Chia, 2006; 양소은, 김은미, 2014: 6 재인용). 결국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그 질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으며,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온라인의 영향력이 점점 더 막대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은 디지털 기술의 생활화를

주도하며 청소년의 SNS¹⁾활동을 촉진시킨다. 한국 청소년의 약 70% 이상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SNS활동을 통해 관심사 및 정보를 공유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욕구를 충족한다(이소영, 전해정, 2015: 7608).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온라인의 활용은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형성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반대로 이러한 활동이 오히려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성향이 비슷한 동조집단끼리의 네트워크만을 강화하여 새로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이윤희,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인간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작동하여 개인의 사회적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이 이 공간의 적극적인 이용층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적 문제 측면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와 친구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정병삼, 2012)와 친구 뿐 아니라 부모 및 선생님과의 관계를 포괄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황매향, 2006; 이종원, 2013; 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김영란, 장혜경, 김민정, 김은경, 2015),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연구(김인숙, 이경남, 2004)와 이러한 친구관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학교생활의 적응과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선애, 강영배, 2016) 등이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삶에 있어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지만 대부분 학교와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에 집중되어 있어, 오늘날 다차원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간과했던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그것이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맺어온 청소년의 친구관계 뿐만

1)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란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 간 관계망을 구축하여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관심사 및 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다(이소영, 전해정, 2015: 7607)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공간 속에서 새로이 구축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앱 세대로 일컬어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행복과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가. 청소년기는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경험한다. 더불어 친구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강조되며, 이 시기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그 영향력이 매우 높아, 중요한 지지의 원천 중 하나로 작용한다(김인숙, 이경남, 2004; 박선애, 강영배, 2016: 68). 그러므로 친구와의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와는 또 다른 성질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자 사회자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형성되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중 특히 친구관계와 행복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방식은 청소년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통적으로 청소년이 대인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형성했던 공간이 오프라인이었다면, 오늘날 디지털 환경의 발달은 온라인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상이한 공간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할 것인가?

사회적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Park & Kim, 2008)로서, 이는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며, 그 효과는 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에서 나온다(Bourdieu, 1986).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오늘날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개인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나 인적자본(human capital)과는 구별된 개념으로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친근감이나 서로 잘 아는 관계가 제도화되어 개인 및 집단이 실질적 혹은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를 의미한다(Bourdieu & Wacquant, 1992; 박길성, 2002: 113 재인용). 이에 대해 콜만(Coleman)은 사회자본은 생산적이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본들과 유사하지만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내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한다(임정재, 강정환, 김상돈, 2011: 39). 다시 말해 물질자본이나 인적자본이 개인의 능력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속성으로 귀결되는 반면 사회자본은 개인들 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부르디외(Bourdieu, 1986) 역시 사회자본이란 ‘상호 인지적으로 제도화된 관계의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얻게 되는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사회자본의 이해를 위해 인간관계의 속성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들 간의 닫힌 관계에 주목한 콜만(Coleman, 1988)에 따르면, 사회자본을 통한 사회적 통합은 개인의 자아개념과 감정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그 수준도 낮출 수 있어 궁극적으로 감정적, 정서적 건강수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Cohen, 2004; 이민아, 2013: 174). 반면 퍼트넘(Putnam)은 약한 연계(weak tie)를 강조하며, 사회자본은 ‘연결망, 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성’임을 강조한다(Putnam, 1993: 167; 이민아, 2013: 179). 결국 사회자본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속성이 있지만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제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자본의 결과가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사회적 부채(social liability)와 같이 사회자본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이다(이재열, 2000; 박길성, 2002).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 요소로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다(Diener & Seligman, 2002; Diener & Oishi, 2005; 김혜원, 안진아, 이지연, 2016).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자본과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연결(connectedness) 혹은 연계(social tie)가 갖는 긍정성에 주목하고 있으며(이민아, 2013: 174),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나 유형 등을 이러한 통합과 연계의 수준을 반영하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접촉빈

도가 증가할수록 우울과 고독감이 감소하였으며(남철현, 김병하, 1999; 오인근, 오영삼, 김명일, 2009; 손용진, 2010),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최규련, 2010). 반면 친구의 수가 증가하면 50-60대 여성의 행복감은 증가하지만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지거나(이지현, 한경혜, 2012),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오히려 과도한 연결망의 존재는 우울을 다시 증가시키는 상반된 연구결과 역시 존재한다(이민아, 2013). 이상의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적 연결망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삶의 관계가 작용-반응식의 선형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를 ‘친밀한 집단²⁾’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비선형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친한 친구집단의 크기와 비행의 관계를 살펴본 정지원, 강정환(2012)은 친한 친구 집단이 너무 적을 경우 보호기능이 없어 폭력피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너무 클 경우에는 폐쇄적인 패거리적 속성으로 인해 피해와 가해 가능성이 모두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재철, 최지영(2010) 역시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폭넓은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친구관계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과 개인

디지털 원주민이란 신조어를 만든 프렌스키(Prensky, 2001)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소년세대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며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구사하듯 온라인의 이용과 그에 따른 생활방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세대라고 강조한다(Prensky, 2001; 배상률, 이창호, 2016: 192). 이는 장기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소년은 다른

2) 허록(Hurlock, 1955)은 청소년기 친구집단 크기를 가장 친한 2~3명의 단짝친구(chums), 여러 단짝친구로 구성된 소규모의 배타적 친구집단(dique), 여러 개의 배타적 집단으로 형성된 동료 집단(crowd), 마지막으로 배타적 집단에 끼지 못하고 배척된 청소년들끼리 구성하여 반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는 갱(gang)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정지원, 강정환, 2012).

연령층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또래와 가장 많은 소통을 하고 있으며(Feil, Ficsher, Haidvogel & Zimmer, 2008; 양소은, 김은미, 2014: 14 재인용), 면대면 인간관계보다 오히려 온라인 상에서의 인간관계를 편하게 여기는 경우(Larson, 2003; 박소라, 김은미, 나은영, 2007: 50)도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의 관계형성이 청소년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공간이 오프라인이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 청소년들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의 생산 및 재생산의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은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낯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개방되어 있다. 이는 거주지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간에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자본 축적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이 기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킨다고 평가된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많은 연구들에서는 온라인에서 새로이 형성되거나 혹은 기존의 관계가 보완되는 방식의 사회적 연결망이 사회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왔다. 대표적으로 송경재(2005)는 온라인이 사회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자본 쇠퇴론’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자본 강화론’을 고려하고 있으며, 퍼트남(Putnam)은 TV 및 전화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이 전통적인 사회자본마저 쇠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임정재 외, 2011: 41). 온라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권정혜, 육철아, 우성범, 조현(2013)은 친밀한 사람들과의 온라인에서 관계유지 행동이 오프라인 활동과 별개로 사회자본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즉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오프라인과 별도로 대인관계 내 고유한 역할을 차지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SNS 등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상호작용적인 동기를 더 크게 느끼고(권상희, 우지수, 2005), 정서적 애착이 증가하며(최윤정, 2009), 구성원들과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한다(박성복, 황하성, 2007)는 점에서 온라인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온라인 활동이 피상적인 관계만을 증가시켜, 현실의 친구들과는 교류할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대인관계에 해로울 것이라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Locke, 199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관계의 효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연결망의 규모와 유형의 효과 모두 단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적 연결망과 개인의 관계를 단순히 긍정적인 관계로 전제하는 것은 그러한 관계 안에 내포되어 있는 복잡한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형성된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후, 더 나아가 연결망의 유형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효과 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7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이다. 2009년부터 조사가 시작 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연구는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OECD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이 있다. 2017년 설문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은 시도교육청의 2016년 교육기본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급을 표집 단위로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한 크기 비례 확률추출 방식을 활용하였다(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 2017: 21).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친구유형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문항의 미조사 대상인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중학생 2,464명, 고등학생 2,845명 총 5,309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2. 변수측정

1) 종속변수: 행복지수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에서는 행복지수를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그리고 개

인행복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특히 개인행복은 하위 영역으로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생각을 분류하였으며, 종합적으로 행복지수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건강),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학교생활), (3) 나의 삶에 만족한다(삶의 만족도),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집단소속감), (5) 나는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린다(주변사람과 어울림),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외로움). 이상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된 행복지수를 통해 본 연구는 행복의 종류뿐 아니라 행복의 빈도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총 6개의 문항은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모두 합산하여 로그로 변환한 값이 응답자의 행복지수이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행복지수의 신뢰도 계수는 0.810이다. 행복지수의 세부 문항 간 상관관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청소년의 행복지수 항목별 상관관계

항목	행복지수					
	건강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집단 소속감	주변 사람과 어울림	외로움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1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502**	1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542**	.667**	1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309**	.425**	.403**	1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486**	.601**	.573**	.464**	1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296**	.321**	.403**	.143**	.285**	1
평균	4.12	3.95	3.86	3.76	4.07	3.79
표준편차	0.980	1.047	1.094	1.192	0.959	1.184

* 역코딩

주1) 모든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p < 0.001$)

주2) 신뢰도 계수: 행복지수(0.810)

2) 독립변수: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은 20대보다 온라인 만남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며, 온라인 상 만남이 실제 만남보다 진정성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고(강민주, 2013), 신뢰와 의사소통 측면에서 역시 온라인 친구를 오프라인 친구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즉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귀 친구 못지않게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친구와의 관계 역시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관계 역시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친구 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온라인 친구는 ‘오프라인에서의 아주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온라인상에서 대화나 게임 등의 활동을 하는 날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되는 친구는 모두 몇 명입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오프라인 친구는 ‘학교친구, 학원친구, 동네친구 중 평소 자주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몇 명인가요?’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문항 모두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0명부터 711명까지 다양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를 추정 하기에 앞서 각 문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단치를 제외하였다.

3) 기타 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을 크게 개인 요인(성별, 연령, 학교급, 스트레스), 가족요인(주관적 가정경제형편, 부모님 간 관계만족도, 부모님과 응답자 간 관계만족도), 친구요인(접촉 방식에 따른 친구유형, 친구관계만족도), 학교요인(선생님과의 관계만족도)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개인요인인 성별은 남성이 1값을 갖는 이분변수이며, 연령은 응답자의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과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을 통해 추정한 값이다. 학교급은 중학교가 1 값을 갖는 이분변수로 구성하였다. 가족요인 중 주관적 가정경제형편은 ‘하하(1점)’부터 ‘상상(6점)’까지 총 6개의 응답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님 간 관계만족도와 부모님과 응답자 간 관계만족도는 ‘전혀 좋지 않다(1점)’에서 ‘매우 좋다(5점)’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만족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친구요인은 2016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된 친구관계 문항을 활용하여, 총 3가지 친구유형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접촉하는 친구보다 온라인상에서 접촉하는 친구가 많은 경우 ‘온라인 중심형’, 오프라인 상 친구가 더 많은 경우 ‘오프라인 중심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분류한 오프라인 중심형 중 해당 친구들과 온라인상에서 접촉 빈도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씩 일주일에 3번 이상 빈번하게 접촉하는 경우,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 모두에서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온라인·오프라인 결합형³⁾’으로 분류하였다. 즉 친구유형은 친구와의 접촉방식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온라인 중심형, 온라인·오프라인 결합형(이하 온오프라인 결합형), 오프라인 중심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이후 분석에서 사회적 연결망 유형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친구관계 만족도는 ‘전혀 좋지 않다(1점)’에서 ‘매우 좋다(5점)’까지로 이뤄져있다.

끝으로 학교요인은 선생님과 응답자 간의 관계만족도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선생님과 과의 관계만족도는 ‘전혀 좋지 않다(1점)’에서 ‘매우 좋다(5점)’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 수록 선생님과 과의 관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분석 대상자 중 여성은 2,548명, 남성은 2,7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지수는 6점에서 최대 30점까지 가능하며, 전체 응답자의 행복지수는 평균 23.56점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친구수는 평균 10명이었다. 응답자 전체의 친구관계 유형은 온라인 중심형 7.8%,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형 36.6% 오프라인 중심형 55.6%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친구들과 오프라인 중심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결합형보다 오프라인 중심형 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오늘날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과 방과 후 학원 등으로 인해 실제 온라인 이용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

3) 온라인·오프라인 결합형을 추정하는 방식은 집단의 일관성을 위하여 해당 설문지의 온라인 친구들을 규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해당 설문지에서 ‘온라인 친구’의 정의는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접촉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역시 오프라인 상 아주 친한 친구이며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하루 한 시간 이상,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접촉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결합형으로 간주하였다.

으로 추정된다⁴⁾.

친구관계 유형별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온오프라인 결합형(23.76점)이며, 오프라인 중심형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온라인 중심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 만족도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 역시 24.36점으로 온오프라인 결합형이었으며, 오프라인 중심형과 온라인 중심형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친구 수는 온라인 중심형이 약 29명으로 온오프라인 결합형보다 약 3배, 오프라인 중심형보다는 약 4배 이상 많았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전체		친구관계 유형					
	표본 수	평균 (Std.)	온라인 중심형	온라인 중심형	온라인 중심형	온라인 중심형	온라인 중심형	온라인 중심형
행복지수(6-30)	5,309	23.56 (4.637)	414	22.78 (4.679)	1,945	23.76 (4.441)	2,950	23.53 (4.746)
사회적 연결망 규모 (0-333)	5,309	10.45 (18.933)	414	29.33 (33.004)	1,945	10.32 (15.172)	2,950	7.88 (16.861)
성별								
여성	2,548	(48.0)	276	(66.7)	1,023	(52.6)	1,249	(42.3)
남성	2,762	(52.0)	138	(33.3)	923	(47.4)	1,701	(57.7)
연령(14-19)	5,309	16.62 (1.689)	414	16.53 (1.595)	1,945	16.64 (1.612)	2,950	16.62 (1.750)
중학교	2,464	(46.4)	201	(48.6)	889	(45.7)	1,374	(46.6)
고등학교	2,845	(53.6)	213	(51.4)	1,056	(54.3)	1,576	(53.4)
스트레스(1-85)	5,256	38.68 (13.202)	406	42.06 (12.364)	1,930	38.85 (12.891)	2,920	38.11 (13.447)

4)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10대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5.4시간으로 하루 평균 약 2시간 정도로 추정된다.

항목	전체		친구관계 유형					
	표본 수	평균 (Std.)	온라인 중심형		온라인·오프라인 결합형		오프라인 중심형	
			표본 수	평균 (Std.)	표본 수	평균 (Std.)	표본 수	평균 (Std.)
주관적 가정경제 형편(1-6)	5,228	3.76 (0.970)	410	3.77 (0.976)	1,925	3.74 (0.952)	2,892	3.77 (0.980)
부모님 간 관계 만족도(1-5)	4,890	4.15 (0.972)	387	4.03 (1.056)	1,776	4.18 (0.967)	2,727	4.16 (0.961)
아버지와 관계 만족도(4-20)	5,024	15.62 (3.950)	394	15.05 (4.343)	1,823	15.73 (3.843)	2,807	15.63 (3.953)
어머니와 관계 만족도(4-20)	5,119	17.15 (3.242)	400	16.86 (3.473)	1,889	17.30 (3.140)	2,829	17.10 (3.271)
사회적 연결망 유형 온라인 중심형 온·오프라인 결합형 오프라인 중심형	5,309	-	414	(7.8)	1,945	(36.6)	2,950	(55.6)
친구관계 만족도(7-30)	5,035	24.23 (3.974)	409	24.02 (4.182)	1,932	24.36 (3.824)	2,694	24.16 (4.045)
선생님과 관계 만족도(2-10)	5,272	7.54 (1.900)	412	7.40 (2.071)	1,932	7.56 (1.828)	2,928	7.54 (1.921)

주)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부여한 값임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청소년의 행복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인 방식으로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1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살펴보았으며, 모형 2에서는 연결망 규모와 함께 구체적인 친구유형(이하 사회적 연결망 유형)을 추가했을 때 행복지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도 연결망 규모와 행복지수 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는 연결망 유형에 따라 연결망 규모의 효과가 다른지 검증하기 위해 연결망 유형과 규모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분석은 각각의 연결망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결망 유형별(온라인 중심형, 온라인·오프라인 결합형, 오프라인 중심형)로 하위집단 분석(subsample analyses)을 실시하여 연결망 규모와 행복 간의 관계를 각각 비교하였다.

IV. 분석결과

1. 사회적 연결망의 양면성: 연결망 규모와 청소년 행복간의 역U자형 관계

표 3은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변량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모형 1은 다른 변수들을 제외하고 오직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청소년의 행복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결망의 규모가 커질수록 청소년의 행복지수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 둘 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친구규모를 가질 경우 청소년의 행복도는 오히려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망의 규모와 행복도 간의 비선형 관계는 모형 2와 모형 3까지 위계적 방식으로 다른 변수들을 추가하여도 유지되었다. 던바(Dunbar, 1992)의 논의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둘 수 있는 친구의 수가 150명이라고 규정하며, 이 수를 ‘던바의 수(Dunbar’s number)’라고 지칭한다. 즉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원을 주고받는 유의미한 관계 맺기와 상호작용의 한계점이 바로 이 던바의 수라는 것이다. 던바이론의 핵심은 집단적 유대가 주는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5명, 15명, 150명 등 집단의 크기에 따라 얻게 될 편익과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각기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페이스북 내의 네트워크 크기와 상호작용 질을 살펴본 이재현(2016) 역시 던바의 가정을 지지하며, 온라인의 활동이 던바의 수의 약간의 확대를 가져오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상회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상호작용의 질은 네트워크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던바의 수를 넘어서면 그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표 3

사회적 연결망 규모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지수

항목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B	S.E	B	S.E
사회적 연결망 규모	0.002***	0.000	0.003***	0.000	0.001**	0.000
사회적 연결망 규모·2	-8.604E-06***	0.000	-1.149E-05***	0.000	-3.405E-06**	0.000
온라인 중심형			-0.082***	0.012	-0.017*	0.010
사회적 온라인·오프라인 연결망 결합형			0.006	0.006	0.006	0.005
유형 오프라인 중심형 (준거집단)			-	-	-	-
성별(남성=1)					0.036***	0.005
연령					-0.008**	0.003
학교급(중학교=1)					0.005	0.010
스트레스					-0.002***	0.000
주관적 가정경제 형편					0.021***	0.003
부모님 간 관계 만족도					0.013***	0.003
아버지와 관계 만족도					0.005***	0.001
어머니와 관계 만족도					0.011***	0.001
친구관계 만족도					0.014***	0.001
선생님과 관계 만족도					0.017***	0.001
상수항	3.117***	0.004	3.114***	0.005	2.447***	0.058
표본수	5,309		5,309		4,471	
F	31.109***		28.381***		268.344***	
R ² (수정된 R ²)	0.012(0.011)		0.021(0.020)		0.457(0.456)	

주1)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부여한 값임

주2)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모형 2는 모형 1에서 각각의 연결망 유형별 더미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여전히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연결망 규모의 계수가 크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청소년의 행복도 간의 관계에서 연결망 유형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케 한다. 또한 연결망 유형 중에서는 오프라인 중심형보다 온라인

중심형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행복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기타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이다. 계수와 통계적 유의도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여전히 연결망의 규모와 행복도가 갖는 비선형 관계는 유지되었다. 그 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행복도는 낮아졌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행복도는 증가하였다. 이는 오늘날 청소년(13-19세)의 42.7%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 역시 50.5%로 2명 중 한명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통계청, 2016). 스트레스 수치는 연령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며, 높은 스트레스가 낮은 삶의 만족도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학업과 진로고민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중되는 압박감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가 느끼는 주관적 가정경제 형편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모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응답자 간의 관계 역시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증가하였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와 선생님과의 관계 역시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은 높아지고 있다. 즉 각각의 가족, 친구, 학교요인들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가족 뿐 아니라 선생님과 친구 역시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재확인 시켜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표 3의 모든 모형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는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결망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 수준 역시 증가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연결망이 확대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행복도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3. 사회적 연결망 규모와 유형 간의 상호작용

표 4는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준거집단은 연결망 유형 중 오프라인 중심형이며, 온라인 중심형과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 간 상호작용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 규모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연결망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한다. 그렇다면 연결망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 다음 단계로 기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외 다른 변수들과 행복 간의 관계는 앞선 표 3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

사회적 연결망 규모와 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분석

항목	모형	
	B	S.E
사회적 연결망 규모·2*유형1(온라인중심형)	-5.794E-06*	0.000
사회적 연결망 규모·2*유형2(온오프라인결합형)	-2.408E-06	0.000
사회적 연결망 규모	0.001***	0.000
사회적 연결망 규모·2	-4.112E-06**	0.000
사회적 온라인 중심형	-0.014	0.010
연결망 온라인·오프라인 결합형	0.006	0.005
유형 오프라인 중심형(준거집단)	-	-
성별(남성=1)	0.036***	0.005
연령	-0.007**	0.003
학교급(중학교=1)	0.005	0.009
스트레스	-0.002***	0.000
주관적 가정경제 형편	0.021***	0.003
부모님 간 관계 만족도	0.013***	0.003
아버지와 관계 만족도	0.005***	0.001
어머니와 관계 만족도	0.011***	0.001
친구관계 만족도	0.014***	0.001
선생님과 관계 만족도	0.017***	0.001
상수항	2.447***	0.058
표본수	4,471	
F	235.408***	
R2(수정된 R2)	0.458(0.456)	

주1)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부여한 값임

주2) * $p < 0.05$, ** $p < 0.01$, *** $p < 0.001$

4. 사회적 연결망의 다차원성: 연결망 유형에 따른 친구규모와 행복 비교

다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행복 간의 관계를 연결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유형별로 공통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 중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행복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행복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온오프라인 결합형과 오프라인 중심형이 온라인 유형보다 특히 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에서는 주관적 가정경제 형편이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유형 모두에서 가정형편이 좋으면 좋을수록 행복도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버지 및 어머니와 관계 만족도 역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부모님과 응답자 간의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응답자의 행복지수 역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친구관계 만족도와 선생님과 관계 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는 모든 친구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상의 결과는 앞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표 3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5

사회적 연결망 유형별 연결망 규모와 청소년의 행복지수

항목	온라인 중심형		온오프라인 결합형		오프라인 중심형	
	B	S.E	B	S.E	B	S.E
사회적 연결망 규모	0.001	0.001	0.001 [*]	0.000	0.001 ^{***}	0.000
사회적 연결망 규모·2	-7.893E-06	0.000	-6.672E-06 [*]	0.000	-4.239E-06 ^{**}	0.000
성별(남성=1)	0.022	0.019	0.033 ^{***}	0.007	0.040 ^{***}	0.007
연령	-0.010	0.011	-0.009 [*]	0.004	-0.006	0.004
학교급(중학교=1)	-0.002	0.033	0.011	0.014	0.002	0.014
스트레스	-0.002 ^{**}	0.001	-0.002 ^{***}	0.000	-0.003 ^{***}	0.000
주관적 가정경제 형편	0.030 ^{**}	0.010	0.014 ^{**}	0.004	0.024 ^{***}	0.004
부모님 간 관계 만족도	0.015	0.009	0.005	0.004	0.020 ^{***}	0.004
아버지와 관계 만족도	0.006 [*]	0.003	0.005 ^{***}	0.001	0.005 ^{***}	0.001

항목	온라인 중심형		온오프라인 결합형		오프라인 중심형	
	B	S.E	B	S.E	B	S.E
어머니와 관계 만족도	0.007 [*]	0.003	0.012 ^{***}	0.002	0.011 ^{***}	0.001
친구관계 만족도	0.015 ^{***}	0.002	0.014 ^{***}	0.001	0.015 ^{***}	0.001
선생님과 관계 만족도	0.021 ^{***}	0.005	0.020 ^{***}	0.002	0.015 ^{***}	0.002
상수항	2.454 ^{***}	0.217	2.505 ^{***}	0.092	2.405 ^{***}	0.081
표본수	365		1,708		2,398	
F	27.552 ^{***}		114.042 ^{***}		171.358 ^{***}	
R ² (수정된 R ²)	0.484(0.467)		0.447(0.443)		0.463(0.460)	

주1)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부여한 값임

주2) * $p < 0.05$, ** $p < 0.01$, *** $p < 0.001$

다음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행복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결망 규모는 친구유형 중 오프라인 중심형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고 있고, 비선형의 형태를 보인다. 즉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이 ‘오프라인 중심형’인 청소년의 경우 연결망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행복도는 높아지지만 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온오프라인 결합형’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반면 연결망 유형 중 ‘온라인 중심형’을 살펴보면, 연결망의 규모는 행복지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온라인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프라인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게 감소된다고 평가한다. 이는 언제든 양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사회자본의 확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의 실질적인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 이들의 관계가 사회자본으로까지 확대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유형들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행복하였으나, ‘온라인 중심형’에서는 성별 역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연령은 ‘온오프라인 결합형’에서만 영향을 미쳐, 온오프라인 결합형 친구관계를 갖는 집단만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부모님 간

관계 만족도는 ‘오프라인 중심형’ 유형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모님 간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청소년의 행복도 역시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별 차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매체 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은 일대일 관계 형성이 기반인 장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든 자신이 원하는 소통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과 상대방 간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 오프라인 공간은 인터넷과 관계없이 개인의 물리적 공간에서 대면접촉을 전제로 하며, 응답자와 상대방의 일대일 관계만이 아니라 일대 다수 즉 집단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온라인에 비해 친구의 수가 증가할수록 관계유지를 위한 시간과 비용 및 갈등 발생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간의 특성을 전제하면, 사회적 연결망은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단순히 1차원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했던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확대된 사회적 연결망과 청소년의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개인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자본으로 작동한다. 특히 온라인의 발달은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청소년은 다른 집단과 달리 이 공간의 적극 이용층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상이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 그 효과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역시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단선적일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연결망의 양면적 특징을 보여준다. 분석결과 친구규모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행복도 역시 상승하였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넘어설 경우 행복도는 다시 낮아지는 역U자형 특징을 보였다. 이 결과는 다른 통제변수들을 추가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사람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통해 연결망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사회적 연

결망이 크면 클수록 이를 유지하기가 힘들다(Ibarra, 1993). 즉 비선형성은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갈등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촉발시킴으로써 관계의 과잉 내지 상호작용의 과잉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역시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가 반드시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친구규모가 0명에서 150명까지라는 응답은 인터넷 등 온라인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연결망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친구규모를 오프라인 상 친구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치는 매우 높아진다. 또한 오프라인 친구보다도 온라인 친구가 더 많은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온라인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탄생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모두 사회자본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연결망 규모의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온라인)이 등장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서로 다른 층이 생겨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별 효과차이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결망 규모와 행복 간의 관계는 오프라인 중심형과 온오프라인 결합형 친구관계에서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중심형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청소년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관계유지행동이 친밀감과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권정혜 외(2013)는 본래 가까웠던 대상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반면, 친하지 않은 대상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친밀감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오프라인 중심형과 온오프라인 결합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물리적 공간(오프라인)을 통해 이미 친밀감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그러한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한 온라인 중심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온라인·오프라인 결합형과 온라인 중심형 유형 간 상이하게 작동하는 ‘온라인’의 역할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의 친구관계가 새로운 사회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미 축적된 사회자본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즉 학업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이동이 잦은 현대인의 삶에서 SNS와 같은 온라인 기술의 발전은 이미 유대가 있던 사람들이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그로

인해 기존에 형성된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게 해주는 ‘지속적 사회자본(maintained social capital)’을 강화시키는 것이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따라서 본 연구결과 역시 아직까지 온라인은 이미 형성된 사회자본의 유지와 보완을 위한 기제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온라인은 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유되는 규범이나 가치,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자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박길성, 2002: 114). 특히 개인의 속성으로 이해되는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과 달리 사회자본은 개인들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토대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관계라 할 수 있다. 신뢰에 대해 이민아(2013)는 대인신뢰가 정신건강에 독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간에 존재하는 비선형적 관계에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즉 사회적 연결망은 응답자가 대인신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대인신뢰의 수준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우울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반면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에 따라 우울의 수준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사회적 연결망과 개인의 삶에 있어 신뢰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온라인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개인 간 신뢰구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추정케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사회적 연결망을 위해 구성된 자료가 아닌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중요한 기반인 신뢰에 대한 문항이 설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연결망과 신뢰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모든 사회적 연결망이 청소년의 행복에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며, 또한 모든 연결망 유형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형은 청소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사회적 관계와 행복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주 (2013).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청소년과 성인초기의 자아정체감 및 친밀감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0(6), 1-28.
- 권상희, 우지수 (2005). 블로그 미디어 연구: 블로그 이용 및 만족과 인지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9(2), 419-460.
- 권정혜, 육설아, 우성범, 조 현 (2013).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인관계가 사회자본형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30(2), 5-32.
- 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 및 그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4(4), 1-29.
- 김영란, 장혜경, 김민정, 김은경 (2015).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 개발**(연구보고서-5).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인숙, 이경님 (2004).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한국가정과학회지**, 7(2), 97-113.
- 김재철, 최지영 (2010).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및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1), 123-148.
- 김태준, 윤혜경 (2008). **청소년 생애 핵심 역량 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08-R15-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김혜원, 안진아, 이지연 (2016). 청소년의 낙관성과 행복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2(1), 277-302.
- 남철현, 김병하 (1999). 유배우 노인의 우울정도와 관련요인 분석연구. **한국노년학**, 19(2), 173-192.
- 박길성 (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109-139.
- 박선애, 강영배 (2016). 여고생의 외모만족도와 친구지지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46, 65-89.
- 박성복, 황하성 (2007). 온라인공간에서의 자기노출, 친밀감, 공동 공간감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6), 469-494.
- 박소라, 김은미, 나은영 (2007).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유형화 및 유형별 친구

- 관계의 특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2, 39-81.
- 배상률, 이창호 (2016).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여가문화 및 팬덤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페이스북을 활용한 청소년 집단지성 토론단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7(3), 189-218.
- 손용진 (2010).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2(3), 311-339.
- 송경재 (2005). 인터넷 사회자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보화정책**, 12(4), 3-22.
- 양소은, 김은미 (2014). 누구와 소통하는가: 연결된 청소년의 공동체적 삶 역량 개발. **한국언론학회**, 58(1), 5-38.
-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 (2017).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오인근, 오영삼, 김명일 (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113-136.
- 이민아 (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U자형 관계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한국사회학**, 47(4), 171-200.
- 이소영, 전해정 (2015). SNS 이용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및 충동성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1), 7607-7616.
- 이윤희 (2014). 국내 SNS의 이용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INTERNET&SECURITY FOCUS**, 56-78.
- 이재열 (2000). 기업의 구조와 변화: 재벌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3, 31-62.
- 이재현 (2016). 관계의 과잉, 상호작용의 과잉: 페이스북에서의 네트워크 크기와 상호작용 질. **언론정보연구**, 53(1), 217-266.
- 이종원 (2013).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13-R1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지현, 한경혜 (2012).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170-205.
- 임정재, 강정환, 김상돈 (2011).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신뢰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12(2), 3-25.
- 정병삼 (2012). 부모, 교사, 친구관계에서 시작하는 지지가 초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 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2), 131-159.
- 정지원, 강정환 (2012). 친밀한 친구집단의 크기와 청소년 비행. **한국사회학**, 46(5), 177-209.
- 주용완, 채승완, 배향은, 김현준 (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최규련 (2010). 가족환경과 학업 및 친구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 관리학회지**, 28(6), 95-111.
- 최윤정 (2009). 온라인 커뮤니티 속 오피니언 리더 집단 검증: 이용 동기, 활동 정도, 대인관계 형성 과정의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회**, 53(4), 372-394.
- 통계청 (2016). **2016년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문화론**. 파주: 교육과학사.
- 황매향 (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7(3), 187-203.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Greenwood Press.
- Cohen, S. (2004).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9(8), 676-684.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Diener, E., & Oishi, S. (2005). The nonobvious social psychology of happiness. *Psychological Inquiry*, 16(4), 162-167.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Dunbar, R. I. M. (1992). Neocortex size as a constraint on group size in primates. *Journal of Human Evolution*, 22, 469-493.
- Ellison, N. B., Steinfield, C. S.,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 1143-1168.

- Gardner, H., & Davis, K. (2014). **앱 제너레이션: 스마트 세대와 창조 지능**. (이수경 역.). 서울: 와이즈베리.
- Hurlock, E. B. (1955).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 Ibarra, H. (1993). Personal networks of women and minorities in management: A conceptual framework.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 56-87.
- Larson, D. (2003). Online dispute resolution: Do you know where your children are?. *Negotiation Journal*, 199-205.
- Locke, J. L. (1998). *The de-voicing of society: Why we don't talk to each other anymore*. Simon & Schuster.
- Park, Y. S., & Kim, U. C. (2008). The quality of lif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22, 801-836.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 1-6.
-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ABSTRACT

Soci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of the “app generation”: The effects of size and pattern of social networks on happiness

Kim, Eunkyung* · Kim, Kyounghe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soci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referred to as the “App Generation” , on their subjective perception of happiness, using the Adolescents’ Happiness Index Survey conducted by the Bang Jeonghwan Foundation.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size of social networks on happiness shows a reverse U shape relationship. As the size of friends increases, the happiness index rises, but when the happiness index goes beyond a certain size, it falls again, showing a nonlinear curve. Second, in on-line centered patterns of the social networks of adolescents, the size of social networks does not affect adolescent’s happiness at all. It implies that on-line networking today helps to maintain the social capital already accumulated rather than enhancing it to create new social capital for adolesc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social networks do not always play a positive role in enhancing adolescent’s happiness. It suggests that patterns of networks result in different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the happiness of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 social networks, social relationships, social capital, happiness

투고일: 2018. 6. 11, 심사일: 2018. 8. 3, 심사완료일: 2018. 8. 13

* Chung-Ang University, Sociology